

직장인의 의복 ·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정현^{1,*} · 한승희^{2,†}

¹방송통신대학교, 학생

²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향장미용 석사

(2023년 9월 6일 접수: 2023년 11월 4일 수정: 2023년 12월 18일 채택)

Th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and Makeup Colors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eong-Hyun Lee^{1,*} · Seung-Hee Han^{2,†}

¹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tudent

²Han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Master of Arts in Beauty Fragrance
(Received September 6, 2023; Revised November 4, 2023; Accepted December 18, 2023)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청도 지역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9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으며, 표집된 6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one-way)ANOVA, 사후검증(Scheffe's)을 처리하였으며, 직장인의 의복과 메이크업컬러 선택 동기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매력은 상황요인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직장인의 의복,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 외모 만족도, 자아존중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and makeup colors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orking women working in Chungcheong-do for two weeks from July 15, 2023 to July 29, 2023, and 696 sampled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E-mail: gaon5353@naver.com)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ANOVA, and post-verification (Scheffe's) were handl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and office workers' clothing.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makeup color selection motivation,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p < .05$. Through this research procedu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office workers to choose clothes color had a positive (+) effect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cond, office workers' motivation for choosing makeup colo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hysical attractiv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ituational factor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olor choice of clothes of office workers had a positive (+) effect on self-esteem.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office workers to choose makeup col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self-esteem.

Keywords : Clothes of office workers wear, Makeup, Color selection motivati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1. 서론

현대 산업영역에서 컬러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컬러의 이해와 활용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 수용과 해석에 있어 컬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의복, 화장품, 간판, 인쇄물 등 많은 산업체에 컬러는 마케팅 전략과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복과 메이크업에 있어서 컬러는 자신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인상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의복과 메이크업에 컬러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적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왜 컬러를 선택하고 어떠한 이유로 컬러선택에 유인되는지는 마케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제품의 구별과 선택에 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다국적 사람들에게 음료 색상과 맛의 연상 연구[1]은 제품 구매에 컬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비교 문화적 특성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9년 Science 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2]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인지적 과제수행에 대하여 빨간색은 회피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파란색은 창의적인 과제와 관련이 있다는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였다.

컬러선택 동기 연구와 관련하여 양적 풍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컬러를 선택하는 동기에 대한 연구가 소수 발표되었다. 의복 컬러 선택 동기[3]은 계절이나 체형, 컬러의 가시도, 의복의 관리 등의 외부적 요인과 개인의 감정, 선호하는 컬러, 추구 이미지 등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4]은 성인 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 동기 구성 요인 분석 연구에서 페이스, 상황, 코디네이션, 트렌드, 정서 상태, 무동기의 6개 요소로 컬러선택 동기의 구성개념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5]도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선택 동기 연구에서 메이크업 컬러동기를 유행색, 선호컬러, 전문가 조언, 피부색, 모발 색 요인으로 보고 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최근 컬러 선택 동기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4]은 직장 여성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대인관계성향과 외모만족도에 통계적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6]은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신체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개인의 다양한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관련 변인을 향상시키고 외모 관련 변인의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컬러선택 동기 연구가 매우 소수의 연구였지만, 진행된 소개단계의 학문영역으로

서 컬러선택 동기와 다양한 관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메이크업과 의복의 톤 변화와 이미지 연구[7]의 블랙과 조합된 체크패턴 컬러의 의복 이미지 평가 연구[8]의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 코디네이션에 따른 조화감 연구[9]은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코디네이션과 조화감 지각 연구[10]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 되었다. 하지만 컬러 이미지, 컬러코디네이션과 관련한 연구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컬러선택 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모가 강력한 매력자본(Erotic capital or Attractive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11]에서 의복과 메이크업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컬러 선택 동기와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 탐색은 시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와 관련

된 사람들의 행위에서 컬러 선택 동기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산업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컬러 선택 이유와 동기가 중대한 결과로써 예측되는 산업 영역에서 시장조사와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청도지역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7월 15부터 2023년 7월 29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의 편의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표집된 6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50-59세 이하 212명(30.5%), 연령은 20-29세 이하 142명(20.4%), 30-39세 이하 139명(20%), 40-49세 이하 121명(17.4%), 60세 이상 82명(11.8%)로 조사되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96)

Division	(N)	Percentage(%)	
Age	20-29years of age or younger	142	20.4
	30-39years of age or younger	139	20.0
	40-49years of age or younger	121	17.4
	50-59years of age or younger	212	30.5
	60years of age or younger	82	11.8
Academic ability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below	5	.7
	High school graduation	126	18.1
	Graduation from a junior college	99	14.2
	Graduation from university	377	54.2
Workplace type	Graduate or higher	89	12.8
	A public institution	42	6.0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257	36.9
Monthly income	Conglomerate	20	2.9
	Guitar	377	54.2
	200Less than	104	14.9
	200-300Less than	218	31.3
Monthly income	300-400Less than	142	20.4
	400-500Less than	64	9.2
	500 or more	168	24.1
Sum	696	100	

다. 학력은 대졸 377명(54.2%), 고졸 126명(18.1%), 전문대졸 99명(14.2%), 대학원이상 89명(12.8%), 중졸 이하 5명(7%)로 조사되었다. 직장은 기타 377명(54.2%) 중소기업 257명(36.9%), 공공기관 42명(6.0%), 대기업 20명(2.9%), 로 조사되었다. 소득은 200-300미만 218명(31.3%), 500만원 이상 168명(24.1%), 300-400미만 142명(20.4%), 200만원미만 104명(14.9%), 400-500미만 64명(9.2%)으로 조사되었다.

2.2. 조사도구

2.2.1. 설문지구성

실제문항 분석을 위한 대상자의 크기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복컬러 선택 동기,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총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4문항, 의복컬러 선택 동기와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3, 4]의 선행연구를 사용하여 의복컬러, 개인요인, 상황요인의 1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외모만족도[12]의 선행연구를 사용하였으며, 외모만족, 신체만족의 10문항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13]의 선행연구를 사용하여 부정적, 긍정적 요인 중

2문항을 삭제하고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공통요인추출방법은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적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MO (kaiser-Meyer-Olkin) 지수를 산출하여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최종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Cronbach's α) 확보를 위해 검증을 하였다.

2.2.2.1. 의복컬러 선택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의복컬러 선택 동기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2=1046.890$ ($p<.001$)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43으로

Table 2. Clothing Color Selection Motivat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1
Clothing color selection motivation	I choose a color considering my image shown to others	.738
	Wearing clothes in your favorite color makes you feel good	.733
	Before and after wearing it, I choose the color considering my feelings	.711
	Choose a color considering the situation and place to wear	.710
	Choose a color considering your body type	.657
	I consider whether the color of the clothes I wear stands out	.633
Eigenvalue		3.152
Variance(%)		45.029
Cumulative(%)		45.029
Cronbach's α		.794

KMO=.843 $x^2=1046.890$, $p<.001$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794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선행연구 7문항 중 1문항은 요인 적재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문항을 제거하고 6문항만 사용하였다.

2.2.2.2.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메이크업 선택 동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 = 1332.854$, $p < .001$ 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833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고,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개인적 요인 .772, 상황적 요인 .64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777로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2.2.2.3. 외모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외모만족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 = 3386.580$, $p < .001$ 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894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고,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외모만족 .868, 신체매력 .814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2.2.2.4.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 = 2869.464$, $p < .001$ 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853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고,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부정적 .898, 긍정적 .742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선행연구 10문항 중 2문항은 요인 적재치 부족하여 2문항을 제거한 후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3. Analyze and Reliability of Makeup Color Selection Motivation Factors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1	2
Individual factors	I choose a color that matches my overall outfit	.825	.139
	Choose the right color for the situation and location	.734	.092
	Choose your favorite color	.733	.039
	I choose a color considering my image shown to others	.674	.289
	Choose a color considering your body type	.581	.241
a circumstantial factor	Choose a color that stands out	.048	.762
	Choose a color considering your mood (emotion)	.149	.749
	Select the latest trend color	.280	.742
Eigenvalue		3.227	1.257
Variance(%)		40.333	15.715
Cumulative(%)		40.333	56.048
Cronbach's α		.772	.646

KMO=.833 $\chi^2=1332.854$, $p < .001$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appearance satisfaction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1	2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My parents like my appearance	.816	.127
	I have confidence in my appearance	.799	.203
	My appearance makes a good impression on others	.779	.344
	I like the way I look in the mirror	.699	.053
	My colleagues like my appearance	.691	.187
	My appearance is excellent compared to other people	.685	.414
Physical attraction	I have a good figure	.216	.869
	I am satisfied with my weight	.053	.844
	I have confidence in my body	.335	.824
	I can see my figure well	.168	.535
Eigenvalue		4.798	1.554
Variance(%)		47.984	15.541
Cumulative(%)		47.984	63.525
Cronbach's α		.868	.814

KMO=.894 $\chi^2=3386.580$, $p<.001$

Table 5. Factors of self-esteem and reliability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1	2
Negative	Sometimes I think I'm not capable at all	.887	-.152
	I feel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self	.862	-.178
	I don't feel like there's much I'm proud of	.848	-.123
	I wish I could respect my confidence more	.803	-.281
Positive	I feel I have a lot of good qualities	-.282	.807
	I can do as much work as others do	-.318	.782
	I feel like I'm worth at least as much as anyone else	.100	.704
	All in all, I am satisfied with myself	-.382	.662
Eigenvalue		4.140	1.437
Variance(%)		51.756	17.963
Cumulative(%)		51.756	69.718
Cronbach's α		.898	.742

KMO=.853, $\chi^2=2869.464$, $p<.001$

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one-way)ANOVA, 사후검증(Scheffe's)을 처리하였다. 직장인의 의복, 메이크업 컬러선택 동기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만족도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직장인의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는 하위요인별 의복컬러(M=3.5394)로 나타났고,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중 개인요인(M=3.6425), 상황요인(M=2.8592)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의 하위요인 외모만족(M=3.4557), 신체매력(M=2.8305)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부정적(M=2.1724), 긍정적(M=3.7766)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는 개인요인($r=.665$), 상황요인($r=.510$), 외모만족($r=.450$), 신체매력($r=.138$), 긍정적($r=.59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r=-.129$)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의 개인요인은 상황요인($r=.413$), 외모만족($r=.411$), 신체매력($r=.107$), 긍정적($r=.53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r=-.171$)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상황요인은 외모만족($r=.280$), 신체매력($r=.228$), 부정적($r=.047$), 긍정적($r=.23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외모만족도의 외모만족은 신체매력($r=.500$), 긍정적($r=.629$)로 나타나 통계학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r=-.419$)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부정적이 긍정적으로 ($r=-.452$)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2. 연구 검증

3.2.1.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만족요인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Table 6.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Category	M±SD	C		M		A		S	
		CC	IF	SF	SA	P	N	P	
C	CC	3.5394±.60106	1						
	IF	3.6425±.64340	.665**	1					
M	SF	2.8592±.76199	.510**	.413**	1				
	SA	3.4557±.61917	.450**	.411**	.280**	1			
A	P	2.8305±.76865	.138**	.107**	.228**	.500**	1		
	N	2.1724±.86659	-.129**	-.171**	.047	-.419**	-.083*	1	
S	P	3.7766±.68068	.596**	.537**	.230**	.629**	.186**	-.452**	1

* $p < .05$, ** $p < .01$, C: clothing color selection motivation, M: makeup color selection motivation, A: appearance satisfaction, S: self-esteem, CC: clothes color, IF: individual factors, SF: situational factors, SA: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P: Physical attraction, N: Negative, PO: positive

Table 7. Effects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colors on appearanc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Constant)	1.814	.125		14.472	.000		
	Clothes color	.306	.035	.450	13.285	.000	1.000	1.000

$R=.450^a$, adj $R^2=.203$, $F=176.500$, $p<.001$, D-W=1.942

Table 8. Th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colors on body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Physical attraction	(Constant)	2.206	.173		12.781			
	Clothes color	.176	.048	.138	3.669	.000	1.000	1.000

$R=.138^a$, adj $R^2=.019$, $F=13.462$, $p<.001$, D-W=1.930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42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00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450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203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76.500$,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의복컬러($\beta=.450$, $t=13.285$, $p<.001$)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3.2.2.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신체 매력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신체매력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3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138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019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3.462$,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의복컬러($\beta=.138$, $t=3.669$, $p<.001$)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9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3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06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428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183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8.3%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77.792$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개인요인($\beta=.355$, $t=9.432$, $p<.001$), 상화요인($\beta=.133$, $t=3.540$, $p<.0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Makeup Color on Appearanc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T	VI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Constant)	1.900	.127		15.008	.000		
	Individual factors	.342	.036	.355	9.432	.000	.829	1.206
	Situational factors	.108	.031	.133	3.540	.000	.829	1.206

$R=.428^a$, adj $R^2=.183$, $F=77.792$, $p<.001$, D-W=1.930

Table 10. Th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makeup colors on body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T	VIF
Physical attraction	(Constant)	2.122	.169		12.537	.000		
	Individual factors	.019	.049	.016	.391	.696	.829	1.206
	Situational factors	.224	.041	.222	5.458	.000	.829	1.206

$R=.229^a$, adj $R^2=.052$, $F=19.113$, $p<.001$, D-W=1.946

3.2.4.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신체매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46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229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052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9.11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개인요인($\beta=.016$, $t=.391$, $p>.0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요인($\beta=.222$, $t=5.458$, $p<.001$)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5.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부정적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71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129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017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1.83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의복컬러($\beta=-.129$, $t=-3.440$, $p<.01$)은 통계학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he negativ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col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Negative	(Constant)	2.833	.195		14.542	.000		
	Clothes color	-.187	.054	-.129	-3.440	.001	1.000	1.000

$R=.129^a$, adj $R^2=.017$, $F=11.833$, $p<.001$, D-W=1.971

Table 12. The positiv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clothing col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Positive	(Constant)	.209	.054		3.868	.000		
	Clothes color	.970	.015	.926	64.608	.000	1.000	1.000

$R=.926^a$, adj $R^2=.857$, $F=4174.189$, $p<.001$, D-W=1.911

3.2.6.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긍정적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11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926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857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85.7%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4174.189$,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의복컬러($\beta=.926$, $t=64.608$, $p<.001$)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7.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부정적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부정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73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215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04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6.712$,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개인요인($\beta=-.230$, $t=5.640$, $p<.001$), 상황요인($\beta=.142$, $t=3.487$, $p<.01$)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8.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긍정적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긍정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2.114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675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가 .45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45.6%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90.295$,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

Table 13. The negativ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makeup col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Constant)	2.838	.191		14.821	.000		
Negative	Individual factors	-.309	.055	-.230	-5.640	.000	.829	1.206
	Situational factors	.162	.046	.142	3.487	.001	.829	1.206

$R=.215^a$, adj $R^2=.046$, $F=16.712$, $p<.001$, D-W=1.973

Table 14. The positive effect of office workers' motivation to choose makeup col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i>t</i>	<i>p</i>	T	VIF
	(Constant)	1.149	.105		10.927	.000		
Positive	Individual factors	.576	.030	.589	19.129	.000	.829	1.206
	Situational factors	.139	.025	.168	5.446	.000	.829	1.206

$R=.675^a$, adj $R^2=.456$, $F=290.295$, $p<.001$, D-W=2.114

고, 개인요인($\beta=-.589$, $t=19.129$, $p<.001$), 상황요인($\beta=.168$, $t=5.446$, $p<.001$)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의복과 메이크업의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직장인들의 위축된 심신이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평가가 높아지면 외모자신감, 신체매력도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비만도가 높은 남자 청소년은 완만하게 저하되지만, 여자 청소년인 경우 비만도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현저하게 낮아지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여 모두 외모 만족도가 높아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5].

직장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16]은 30대가 20대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30대가 직장의 급여 문제와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생활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의복, 메이크업 컬러 선택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 선택은 가격이 싼 옷도 고급지게 보이게도 한다. 또한 메이크업

컬러 선택 역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유능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지지는 유능감에 대한 희망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희망[17]은 직장 내의 분위기가 인간관계 등 긍정적인 요인의 로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두려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18]은 패션 테라피 요법 프로그램을 통한 외모 관리가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6]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의 색채와 메이크업 컬러는 오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을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컬러 선택 이유와 동기가 중대한 결과로 예측될 수 있는 산업 영역의 시장조

사와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컬러 선택 동기에 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와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일련의 연구결과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도와 신체매력에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선택이 외모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모에 만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의미이다.

둘째,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외모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만족 하위요인의 신체매력은 상황요인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요인은 통계학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인의 의복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메이크업 컬러 선택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연구대상자를 폭넓게 연구 할 필요가 있고, 독립변수로 사용한 의복과 메이크업 컬러 선택 동기의 측정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가 미흡하여 미래 연구에서는 컬러 선택 동기의 척도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X. Wan, A. T. Woods, N. Butcher, "When the shape of the class influences the flavour associated with a coloured beverage: Evidence from consumers in three countrie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Vol.0, No.39 pp. 109-116, (2015).
2. R. Mehta, R. J. Zhu, "Blue or Red? Exploring the effect of color on cognitive task performances", *Science*, Vol.323, No.5918 pp. 1226-1229, (2009).
3. Y. J. In, k. H. Lee, "Outdoor Wear Color Preference and Color Selection Motives of Male and Female Consum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15, No.4 pp. 153-169, (2015).
4. S. E. Lee, Y. J. Lee, "The 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on the Motivation of Makeup Color Sele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Female Workers",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24, No.2 pp. 1-10, (2023).
5. M. S. han, "Centered on the Colors for Hair and Make-up = A Study on the Personal Color Selection Factors and the Satisfac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4, No.4 pp. 369-375, (2002).
6. S. E. Lee, Y. J. Lee, "The Effect of the Color Selection Motivation on Body Attractive Perception and Self-Respect in Working Wo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1 pp. 256-265, (2022).
7. S. J. Jeong, "Effect of Tone Variation of Makeup and Clothing on Image in Color Coordination -Focused on Achromatic Clothing Weare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15, No.2 pp. 311-325, (2007).
8. S. K. Choi, "The Consumer Evaluation on the Clothing Image of Check Pattern Colors combined with the Black",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6, No.2 pp. 41-49, (2012)
9. S. J. Jung, J. Y. Lim, K. J. Kang, "A Study on the Harmony of Color Coordination between Makeup and Clothing"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2006, No.1 pp. 319-321, (2006).

10. S. J. Choi, S. K. Jung, "The Effect of Color Coordination of Clothing and Makeup on Harmony",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1, No.4 pp.9-19.(2007).
11. C. Hakim, "Erotic capita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26, No.5 pp. 499-518, (2010).
12. J. S. Shin, S. H. Song, K. M. Ryoo,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Adaptation : Focusing on the Five-Star Hote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lations among Female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9, No.11 pp. 59-72, (2015).
13.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4. S. J. Moon, K. H. ka, E. H. Kim."A Research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Rural Area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31, No.4 pp. 297-316, (2019).
15. L. J. Chung, J. Y. Lee, "The Impact of Obesity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on Self-Esteem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1, No.38 pp. 60-80, (2011).
16. J. H. Mom, Y. S. Won,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Esteem in Workers",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16, No.5 pp. 153-169, (2021)
17. K. D. Lee, "Moderating effect of hope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among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10 pp. 189-194,(2021).
18. Y. R. Kang, M.Y. Kim, "Development of fashion therapy programs for improving body image and self-esteem - Focused on the male workers -",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Vol.29, No.2 pp. 167-184, (2021).